

양계인 58%, 양계산업 어두울 것으로 전망

채란인 유통개선, 육계인 표준계약서 선결과제로

보고는 올유년 닭의 해를 맞이하면서 양계인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당면현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양계인을 대상으로 본회 육계, 채란인 대회 행사는 물론 직·간접(전화 및 팩스 등)적인 방법을 통해 조사한 2005년도 양계 당면현안 및 양계업 전망'에 대해 설문 응답을 받아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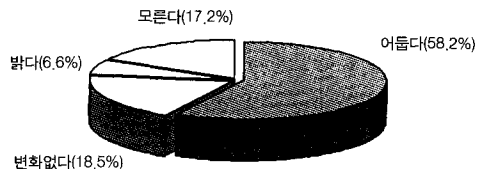
본 설문에는 총 314명의 양계인(채란 98명, 육계 199명, 종계 17명)이 참여해 주었으며, 채란업의 경우 농가당 평균 사육수수가 3만9천수, 육계업과 종계업은 각각 4만3천수, 5만7천수로 각각 나타났다.

- 편집자주 -

■ 2005년도 양계업 전망은?

양계인들은 과연 앞으로의 양계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난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이후 고가의 양계산물 가격 형성, 수입량 증가 등 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2005년도 이후의 양계업 전망을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314명중 302명이 응답을 했으며 이중 미래가 어둡다라고 답변한 양계인이

2005년도 이후 양계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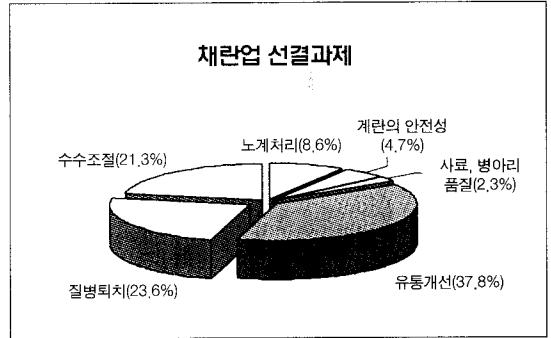
176명(58.2%)으로 가장 많았고, 큰 변화 없을 것이다(18.5%), 밝을 것이다(6.6%), 모르겠다(17.2%)로 각각 응답해 상당수의 양계인들이 앞으로의 양계업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였다. 이는 2003년도 4월호 본지에서 발표한 설문내용(어둡다-61.1%, 변화없다-25%, 밝다-4.3%, 모르겠다-9.6%)보다는 다소 긍정적으로 나왔으나 '모르겠다'는 의견이 2003년도 보다 높게 나타나 수입개방, 질병 확산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농가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로 보면 채란인(어둡다-33.0%, 변화없다-22.7%, 밝다-9.2%, 모르겠다-35.1%)과 종계인(어둡다-52.9%, 변화없다-23.5%, 밝다-5.8%, 모르겠다-5.8%)보다 육계인(어둡다-70.3%, 변화없다-15.6%, 밝다-5.2%, 모르겠다-8.8%)들이 앞으로의 양계경기를 어둡게 전망하였다.

채란분야

채란분야의 설문에 참여한 농가는 총 98명으로 지난 11월 4~5일 전남 나주에서 개최되었던 전국채란인대회에 참석한 전국 채란인 및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설문을 받았다. 채란인들은 대체적으로 2005년도의 경기를 육계인들보다 비관적으로 전망하지 않았지만, 최근의 고가의 계란가격 형성으로 환우가 과거보다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계란의 안전성 문제, 구운계란 수입 등으로 불안감이 쌓이면서 밝을 것으로 내다본 채란인들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채란업 선결과제는?

채란업의 당면현안 및 선결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유통개선(37.8%)을 가장 첫 번째로 꼽았다. 이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후장기제도의 병폐는 물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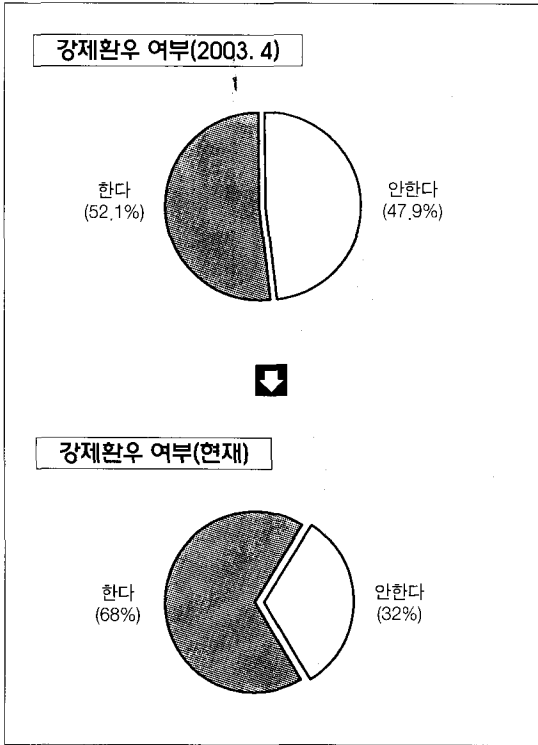
계란가격 DC, 할인매장의 세일 등으로 여전히 계란 유통의 혼란이 거듭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어 질병퇴치(23.6%), 수수조절(21.3%), 노계처리(8.6%), 계란의 안전성(4.7%), 사료, 병아리 품질(2.3%) 순으로 선결과제를 선정했는데, 지난해 조사(노계처리-30.9%, 유통개선-28.5%, 수수조절-28.5%)와 비교해 볼 때 고가의 가격형성으로 노계처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질병과 수수감축이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생산비 절감에 걸림들은?

과거에는 생산비 절감에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 질병분야였다. 이번 설문에서도 생산비 절감에 걸림들로 작용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 채란인들의 절반에 가까운 47.7%가 질병발생을 들고 있어 아직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재발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병아리 사료가격 상승(18.8%), 사육수수 증가(18.7%), 병아리 사료가격 품질(12.1%), 사양관리 미흡(3.7%) 등으로 2004년도 급상승한 사료가격 등 원자재비 상승과 품질저하도 생산비 절감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주령 계군의 강제환우 여부는?

고주령 계군(78주령 이후)의 강제환우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다는 응답이 68%, 안한다는 응답이 32.0%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환우가 큰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다는 농가들은 대부분 한번을 하고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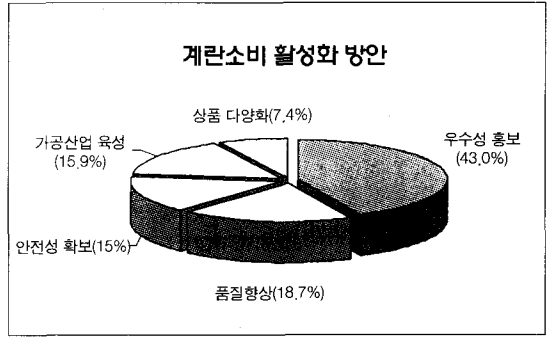


만 개중에는 2번(2.1%)이나 3번이상(1.0%)을 하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고난가가 지속되면서 생산성이 낮은 계란을 환우시켜 생산에 가담시키기가 하면, 일부에서는 노계를 사들여 환우시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4월에 조사한 환우 경향에서 환우를 한다(52.1%), 안한다(47.9%)를 보여줬던 것 보다 환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최근 환우에 대한 경제성 분석 작업과 더불어 환우에 대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4. 계란 안전성 문제 해결 방안?

최근 양계산물 항생제 잔류문제 등 계란의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안전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계란의 안전성 홍보(43.7%)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았으며, 항생제 사용 억제(23.3%), 항생제 관련 보도자재 요청(18.4%),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농장적용(14.6%) 등을 소비활성화 방안으로 선택했다. 계란



안전성 홍보는 금년부터 본격 추진될 자조금사업과 연계하여 의무자조금 사업의 정착을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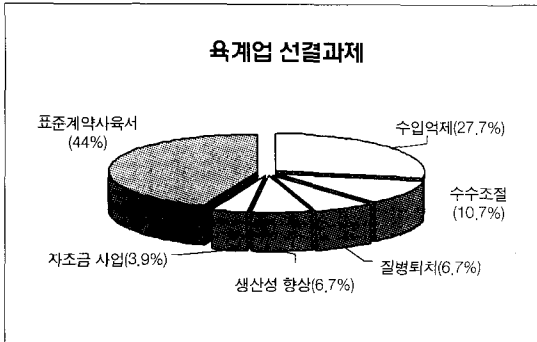
5. 계란소비 활성화 방안은?

국내 경기 침체로 계란소비가 서민층을 대상으로 큰폭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계란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계란우수성 홍보(43.0%)가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 계란의 우수성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질향상(18.7%), 안전성 확보(15.0%), 가공산업 육성(15.9%), 상품란의 다양화(7.4%)순으로 나타났다. 웰빙 시대에 발맞춰 소비자를 향한 소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육계분야

육계분야의 설문에 참여한 농가는 총 199명으로 지난 10월 28일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전국육계인대회에 참석한 육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으며, 충청도에서 대회가 열린 만큼 충청지역 육계농가가 전체 농가중 82명(41.2%, 충남 49명, 충북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50명(25.1%), 경상도 43명(경남 8명, 경북 35명), 전라도 24명(전남 2명, 전북 22명)이 참석, 설문에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육계인들은 2005년도 육계산업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사육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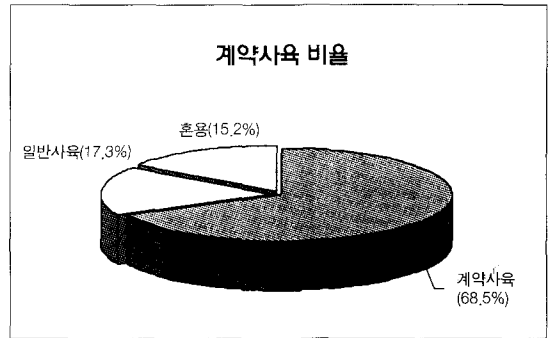
1. 육계업 선결과제는?



육계업의 당면현안 및 선결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육계표준사육계약서(44.0%)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열화 참여농가들이 늘어나면서 계열주체와 농가들간의 분쟁의 소지가 높아짐에 따라 공인된 표준사육계약서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수입억제(27.7%), 수수조절(10.7%), 질병퇴치(6.7%), 생산성 향상(6.7%), 자조금 사업(3.9%) 순으로 나타나면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움직임 등에 따른 걱정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계약사육 비율

육계업의 경우 사육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99명중 계약사육이 68.5%(135명), 일반사육이 17.3%(34명), 혼용이 15.2%로 나타나 지난 2003년 4월에 조사했던 계약사육 비율(계약사육-71.1%, 일반사육-17.5%, 혼용-11.3%)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금년 하반기 동안 육계가격이 고가로 형성되면서 혼용이 과거보다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혼용까지 계약사육으로 본다면 83.7%가 계약사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1년 전(82.4%)보다 1.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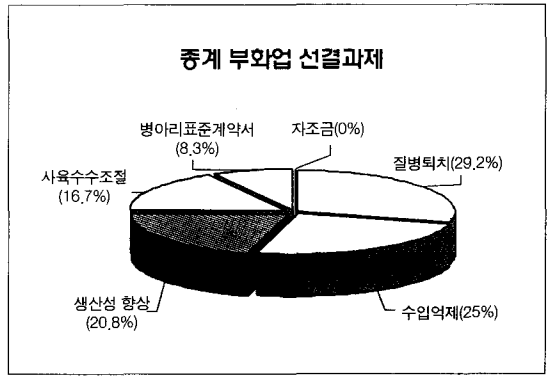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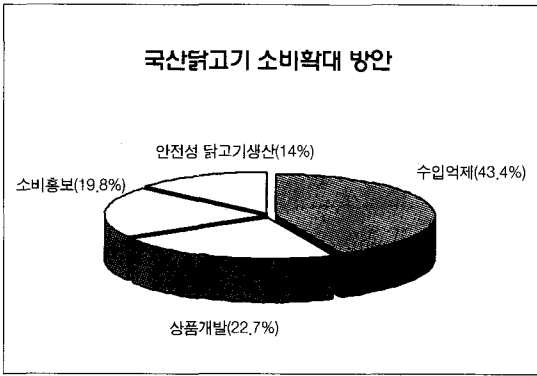
한 수치이다.

지역적으로 보면 충청도(계약사육-70.7%, 일반사육-6.1%, 혼용-23.2%), 경상도(계약사육-88.4%, 일반사육-9.3%, 혼용-2.3%), 전라도(계약사육-62.5%, 일반사육-25%, 혼용-12.5%), 경기도(계약사육-48%, 일반사육-38%, 혼용-14%)순으로 계약사육 비율이 낮아졌고, 계약사육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청도로 혼용까지 93.9%가 계열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지역의 계약사육비율(혼용포함)이 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별로 볼 때 경북 지역의 계약사육비율(혼용포함)이 97.1%(계열 94.3%, 혼용 2.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주지역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육계인들이 계열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계약사육의 애로사항

계약사육농가가 늘어나고, 표준계약서 사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계약사육의 당면과제를 알아보기 위해 계약사육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계약조건 불합리가 응답자의 54.1%를 차지해 계약사육 수수료 등 계약조건이 농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면적인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료, 병아리 품질이 28.9%, 결제지연 13.2%, 입추, 출하 3.9%로 나타나 계약조건 다음으로 병아리와 사료의 품질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국산 닭고기 소비확대 방안

국산 닭고기 소비확대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수입억제(43.4%), 상품개발(22.7%), 소비홍보(19.8%), 안전성 닭고기 생산(14.0%) 순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상품개발과 소비홍보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수입을 막아 유통을 근절 시킴으로써 국내산과의 차별화를 기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맛있고 신선한 닭고기를 통해 소비활성화를 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2004년도에 닭고기 항생제 검출 파문이 2차례에 걸쳐 보도되었고 앞으로도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성 닭고기 생산에는 낮은 관심도를 보였다.

종계 · 부화 분야

종계분야의 설문에 참여한 농가는 총 17명으로 평균 사육수수가 5만7천수였으며, 일반사육 농가가 64.7%, 계약사육 농가가 5.8%, 혼용이 29.4%로 일반사육농가들의 참여가 많았다.

1. 종계 · 부화업 선결과제는?

종계 · 부화업계에서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는 질병퇴치가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수입억제(25%), 생산성 향상(20.8%), 사육수수조절(16.7%), 표준계약서(8.3%), 자조금 사업(0%)순으로 의견을 주었다. 이는 최근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백

세미 문제와 관련하여 질병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다루어야 할 주요안건에 관한 질문에서는 닭고기 소비 안전성 방안모색(47.6%), 종계 · 부화장 방역관리 강화 방침(28.6%), 병아리 납품 표준계약서(19%)순으로 나타났다.

2. 닭고기 소비확대 방안?

종계 · 부화업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닭고기 소비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안전성 닭고기 생산이 40.9%로 가장 높았고, 상품개발(31.8%), 수입억제(18.2%), 소비홍보(9.1%)가 뒤를 이었다. 이는 육계업계와 큰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육계업계가 수입억제를 첫 번째로 선택한데 비해 종계업계는 최근에 붉어지는 닭고기내 항생제 보도 등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성 닭고기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추백리, 가금티푸스 방역정책

정부에서는 최근 종계장 · 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안)을 제정고시하고 추백리와 가금티푸스가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 도태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계부화인들의 생각을 물어보았는데 불만스럽다는 응답이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23.5%), 흡족하다(11.8%)는 의견을 주어 이번에 제정된 요령(안)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계**

분석 | 김동진 팀장
dj@poultry.or.kr

